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Lock down이 오는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속히 끝나기를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2. 2020년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범위 시편 9-29편. 매일 3장씩).
3. TEE 성경공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향존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 바랍니다(개강: 9월 8일, 기도 과목은 풍생과 신도 중 한 과목을 수강한 다음 가능).

과목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요일 및 시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2시	주일 오후 3시50분
담당 목사	이성철 목사	이성훈 목사	이태한 목사
기간 / 회비	15주 / \$20	11주 / \$25	11주 / \$20

4. 세례자 예비 교육이 8월 30일(주일)부터 4주간 주일 예배 후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성도는 신청 바랍니다(세례식: 9월 27일 주일 2부 예배).
5.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십시오(11시 30분, 느헤미야실).
6.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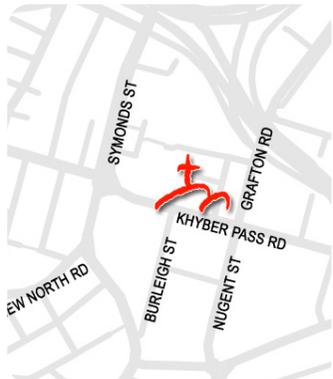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8월 교회사역일지

8월 9일 (주일)
전도주일
8월 16일 (주일)
인도자 성경공부
8월 30일 (주일)
권사 기도회

8/9월 기도순서

8월 30일 (주일)
김병진 목사
9월 2일 (수)
정옥자 권사
9월 6일 (주일)
김철재 집사
9월 9일 (수)
정진택 집사

8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병진,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34호

2020.08.23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
다음 주 일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38:1-2	인도자
✧찬 송	40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61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11:27-32	인도자
설 교	셈에서아브람까지	이태한 목사
찬 송	430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요일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가정예배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1:19-26
설 교	신앙은 생활이다
	이태한 목사
찬 송	361장
주 기 도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동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멀리서 선교 소식을 드립니다.

주일예배: Lockdown 기간으로 아직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어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그동안 섬기던 통역자들이 직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수줍음을 많이 타는 루폼노 (18, 고3)가 통역을 하면서 많은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어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 선교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격려를 위해 각 부서별로 정성스러운 카드와 선물을 준비하여 가슴 뭉클하게 하였고, 틈에이저와 유스들을 지켜보면서 무표정하고 어떤 반응이나 내색도 하지 않아 기분이 그랬었는데 카드에 남긴 한 마디 메시지가 선교사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우리의 따따(아버지) 목사님! 선한 목자시며 우리의 상담자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친절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들로부터도 받아 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신 인내와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며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생일 축하합니다!”

타운십 폭동: 제 생애 이렇게 많은 경찰차들이 몰려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타운에 폭동이 일어나 경찰들이 총출동하였고 주일 날 막힌 도로와 군중들을 이리저리 피해 운전하며 참으로 아찔한 그야말로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선교사를 기다리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우직함 하나로 성난 군중들과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예배처소에 도착했습니다. 늘 잊지 않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심 덕분에 살아 나왔고 사역지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치과 치료> 저와 아내가 치아 상태가 안 좋아 치과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절차도 힘들고 또 너무나 비쌌습니다. <병원 침대> 우연히 인터넷으로 모르는 백인 친구가 좋은 침대를 주었습니다. <효도 섬김> 고국 방문 중이신 김중곤 선교사가 한국에 계시는 케이프타운 선교사 부모님들께(30가정) 맛있는 떡을 보내시며 대신 효도를 하였습니다. <아동부> 교회에 들어 오고 싶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 주일 대문 밖에서 있는데 정부 방침으로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 풍경> 거리마다 일자리와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기도 제목

-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이 잘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도록
- 방치되고 있는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저들의 장래를 위해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말씀을 뜻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나눔란

2020년 8월 1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뜻밖의 하나님> 여호수아 5:1-11

인생을 살다 보면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적군은 이미 공포에 휩싸여 있고 (5:1) 아군의 사기는 최상인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5:2).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5: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창 17:10-11).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코앞인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사 55:8)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던 이유는(창 3:9)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승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 것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 6:33).

2)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5:8): 군사력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한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한 것입니다(5:1).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대하 20:15) 하신 말씀대로 전투력이 상실된 할례의 기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이거나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 2:20). 일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낙심하거나 조금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열매와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하박국 선지자 보다(합 3:17-18) 우리는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은 승리를 위한 또 다른 표징입니다.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면 하나님께 하십니다.

3) 구원의 감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5:10): 하나님은 광야에서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전쟁을 앞둔 지금 지키라 하셨습니다(5:10).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 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을(히 9:22) 기억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적들에게 보이고 호시 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기뻐하라(대상 16:3) 하신 대로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고를 넘어가는 삶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대로 백성과 함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주시니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를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갈보리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